

■ 제주도·서귀포시, LH 상대 '혁신도시 상수도 부담금 소송' 패소

택지개발 지역 유사소송 '촉각'

대법원 '택지개발 과정에 이미 부담' LH 주장 받아들여

제주도와 서귀포시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와 벌인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제주도는 이미 수 개의 유사 소송이 진행되는 상태에서 이번 최종 패소 판결을 계기로 소송이 더 확대될까봐 노심초사하고 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달 23일 LH가 서귀포시와 제주도 상수도본부(이하 상수도본부)를 상대로 각각 제기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LH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상수도본부와 서귀포시는 과거 LH에 각각 부과한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9억 8000여만원과 2900여만원을 모두 돌려주고 가산 이자까지 물어야 한다. 따라서 두 기관이 LH에 지급할 금액은 10억원을 훌쩍 넘을 것으로 보인다.

원인자 부담금은 비용 발생 원인 제공자가 그 소요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제도다. 가령 주택을 짓는 과정에서 수도물을 공급 받으려 급수 공사를 시행하면 관리기관 입장에

서는 추가적인 수도물 생산·처리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비용은 관리기관이 아니라 원인 제공자인 급수 공사 시행자가 부담해야 한다.

따라서 신규 급수 공사는 모두 부담금 부과 대상이다. 제주도는 이중 하루 계획 급수량이 167t 이상 대규모 시설에 대한 협약을 맺어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다.

이번 소송은 2007년 서귀포시 서호동 제주혁신도시 택지 개발을 맡았던 LH가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을 이중으로 납부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시작했다. 택지 개발 과정에서 이미 급수 공사에 따른 부담금을 냈는데, 해당 지역에 아파트를 건축·분양했다는 이유로 2013년 상수도본부와 서귀포시가 또 부담금을 부과한 것은 적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LH는 제주혁신도시 택지개발사업 시행자이자 주택 건설 사업자다.

이번 주장은 2020년 나온 대법원 판결을 기초로 하고 있다. 대법원은 택지 개발된 땅을 분양 받아 아파트를 지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

는 한 부담금 부과 대상은 택지 개발 사업시행자로 한정된다고 판단했다. 이 대법원 판단이 나온 직후 전국적으로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소송이 줄을 이었다.

제주도는 LH와의 소송에서 최종 패소하자 후폭풍을 우려하고 있다. 도내 택지개발 지구에서 아파트 등을 지어 부담금을 냈던 건축주들이 유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LH와 함께 제주혁신도시 택지지구에서 아파트를 분양한 민간사업자는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소송 1심에서 승소한 상태고, 노형 택지지구에서 오피스텔과 수익형 호텔을 건설한 업체는 부담금 명목으로 받아 간 12억여원을 되돌려 달라며 소송을 제기해 현재 1심 이 진행중이다. 도내 택지개발 지구는 10여곳에 이른다.

도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원인자 부담금 관련 소송이 이어지자 지자체가 공동 대응하고 있지만 대부분 지자체가 패소한 상태"라며 "부과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환경부에 부담금 표준 조례를 개정해달라고 요청했지만 1년째 후속 조치가 없어 난감하다"고 토로했다. 이상민기자



봄소풍 나온 아이들 비교적 포근한 9일 제주시 함덕해수욕장에 어린이들이 소풍을 나와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이상민기자

학교폭력 심의 3건 중 1건 한달 훌쩍

제주시교육청 학폭대책심의회 지난해 180건 심의 가해학생 386명... 서면사과·접촉금지·전학 등 조치

지난해 제주지역 초·중·고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중 학교폭력대책 심의위원회로 향한 3건 중 1건은 4주를 넘겨 심의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제주시교육지원청(이하 교육지원청)에 따르면 2022년 학교폭력대책심의회위원회(이하 심의위) 심의 건수는 총 180건(초 37, 중 89, 고 53, 특수 1)이다.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으로 교육지원청에 심의위를 설치한 2020년 100건에서 2021년에는 172건으로 늘었고 이번에는 180건으로 증가했다.

심의위는 이들 중 62건은 학교폭력이 아닌 것으로 판단해 조치를 하지 않았다. 나머지 118건은 신체 폭력(68건), 언어폭력(17건), 사이

버폭력(15건), 금품 갈취(10건), 성폭력(5건) 등으로 분류됐다.

가해 학생(총 386명)에 대한 조치 중에는 서면 사과와 접촉 금지가 각각 109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학교 봉사 68명, 특별교육 29명, 출석 정지 27명, 전학 17명, 사회봉사 16명, 학급 교체 10명, 퇴학 1명 순이었다. 피해 학생(119명)에 대한 심리 상담(93명), 치료와 요양(22명), 일시 보호(3명), 학급 교체(1명) 조치가 나왔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학교폭력 사안이 접수된 180건 중 60여 건은 교육부의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못했다. 학교에서 학교폭력 심의 요청이 있는 경우 3주 이내에 심의위를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특별

한 사정이 있으면 1주일 연기할 수 있도록 했는데 전체의 3분의 1 이상이 최대 4주를 초과한 것이다.

교육지원청 측은 이 같은 심의 지연 비율이 다른 시도에 비해 그나마 낮은 편이라고 했지만 이로 인해 피해 학생 등이 심리적 고통을 겪을 수 있다는 점에서 대책이 요구된다. 이와 관련 교육지원청은 심의위 운영에 따른 법률 자문 지원 등을 맡을 변호사를 추가 배치하기로 하고 현재 1명(임기제공무원)을 공모하고 있다.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교육부의 가이드대로 기간 내 처리를 못하는 것은 인력에 비해 학교폭력 심의 건수가 많기 때문"이라며 "심의 기간이 길어지면 관련 학생은 물론 학교에서 힘들어한다. 앞으로 변호사 종원을 통해 지연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선희기자 sunny@ihalla.com

숙박·음식요금표 미게시 게스트하우스 2곳 적발

요금표를 제대로 게시하지 않은 게스트하우스가 적발됐다.

제주경찰청은 지난달 13일부터 도내 70여곳의 게스트하우스에 대한 점검을 벌여 농어촌정비법과 식품위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게스트하우스 2곳을 적발해 제주도에 통보했다고 9일 밝혔다.

이들 게스트하우스는 식당과 숙박시설을 운영하면서 숙박·음식 요금표를 업장에 게시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행정철을 맞아 읍주파티 등 번개 영입이 예상돼 현장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상민기자

반려견 앞으론 마라도에 못들어간다

유산본부 천연기념물 보호위해 출입 금지 조치

마라도에 서식하는 멸종위기에 처한 천연기념물 '빨쇠오리' 보호를 위해 길고양이를 반출한 문화재 당국이 이번엔 반려견 관리에 나선다.

제주도 세계유산본부는 지난 8일 천연기념물 마라도의 환경을 보존하고 고유의 천연가치를 유지·관리하기 위해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반려견이 목줄 등 안전조치와 함께 소유자가 동반하지 않고 마라도 천연보호구역에 배회 또는 출입하도록 하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대정읍 마라도리장에게 통보했다.

제주도는 이를 위반할 경우 부득

이 문화재보호법 제34조와 제101조에 따라 관련 기관에 조사를 요청할 수 밖에 없다고 양해를 구했다.

도세계유산본부 관계자는 "지난 길고양이 구조작업 과정에서 일부 주민 소유의 반려견들이 마라도 전 지역을 배회하는 것을 확인했고 '빨쇠오리'에 잠재적 위협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우려가 있어 후속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마라도는 철새들의 중간 기착지이자 번식지이지만 매년 빨쇠오리 사체가 나오고 지난달 24일에도 4마리의 사체가 발견됐다. 위영석기자

4년 만에 식목일 나무심기 사라봉에 왕벚나무 350그루

제주시는 이달 14일 사라봉공원에서 제78회 식목일 기념 나무심기 행사를 개최한다. 2019년 이후 4년 만에 개최되는 나무심기 행사다.

이번 행사에는 산림복지·환경 분야 11개 기관·단체와 제주시 공무원 120여명이 참여해 제주 왕벚나무 350그루를 심는다. 이 행사를 통해 제주가 왕벚나무 자생지임을 홍보하고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600만 그루 나무심기 분위기를 띄울 예정이다.

제주시는 올 한 해 109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67만 그루 식재를 목표로 조림 사업, 기후 대응 도시숲, 녹색생태숲, 학교숲 등 녹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앞서 제주시는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식목일 나무심기 행사에서 편백나무 1000그루를 식재했다. 전선희기자

리모델링의 선두주자
濟州 리모델링
 辛一祚 **직원 수시모집**

누수탐지·방수
 누수탐지: 가스식, 청진기식 수도매관 녹물청소
 신축 / 증축 / 리모델링 / 화장실 리모델링
 아파트 / 단독주택 전체 리모델링 / 지붕개량 / 옥상방수 / 페인트공사 / 창문 / 도어문 / 대문 교체
 불박이장 / 싱크대 / 신발장 / 도배 / 장판 / 물집 시공 / 징크 공사

유품 정리해드립니다

책임시공, A/S견적무료
 정성을 다하는 직접시공. 혼을 담은 책임시공
 주소 | 제주시 진동로5길 9, 유진빌라 201호
 친절 **064.742.6234**
 문의 **010.7599.6234**

2023 고소득 추천 목록

두릅	민두릅 참두릅	가시 없는 민두릅, 참두릅, 정강두릅은 봄부터 가을까지 수확
포도	루비로망	직경이 거봉포도 크기의 2배 (3cm, 무게20g, 당도 18브릭스 이상)
감	감풍, 원주 태추단감 슈퍼대봉	신물중, 추위에 강하고 수피단감 배맛이 나는 단감 중에 최고! 대봉중에 맛이 뛰어나 식재를 많이 합니다.
엄나무	민엄나무 가시없는 엄나무	가시 없는 민엄나무 가시 있는 것보다 수확이 2배가 나오고, 효능이 같습니다.
호두	신품종 호두	주기결실, 열매가 크고 속이 짙으면서 가피가 알아 손으로 잘 부스러집니다.

사과, 신품종 호두, 신품종 유실수 등 품종이 다양합니다. *2023년 인기 품종으로 조기 품종이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무는 "갭을농원"과 상담하세요!
 묘목 식재 및 계배 관리까지 무료교육, 무료상담해 드립니다.
휴경지 노는땅 상담해드립니다.

갭을농원 **010-3121-7676**
 문의전화: **053-856-1144**
 경북 경산시 하양읍 함양로25 / 농장 312-3121-7676-위(매일)우·정문화

허가번호 18-제주2022-20-03

감귤요목

유라조생	2~3년생
천혜향	3~5년생
황금향	3~5년생
한라봉	3~6년생
남진해	3~4년생
성전은주	3년생
하례조생	3년생
탐라봉	3년생
윈터프린스	3년생
감귤평	3년생
진지향	3년생
빙자묘	1년생

한림종묘사
 010-8820-5769
 종자관리사 010-3690-2453

감귤 신품종 분양
2023년 봄출하예정 품종 분양

만감류
 레드향, 천혜향(특호), 황금향, 윈터프린스, 한라봉, 사라향(천혜향신품종), 탐나는봉, 카라향, 탐빛1호, 병유자, 아마나스, 레몬, 병자(1년생 300원, 2년생 400원)

조생
 유라조생, 하례조생, 궁천, 오하라배니(궁천변이)
 [유라, 천혜향 레드향, 황금향 2년생 본당 1만원 특별분양 선착순]

농장위치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 850-6번지 (평화로 서광주유소에서 모슬포 방향 300M근도로변)

종자업등록번호 : 18-2003-20-09

자원종묘
대표 : 010-2691-1883
 (관리자 : 010-9480-1564)